

2023년  
7월 15일  
제 78 호



# 사우회보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TEL: 02-722-7416 ●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장명호 ● 편집장: 김상옥

## 상반기 임원 간담회 열려

6월 23일 오전 11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상반기 임원 간담회가 열렸다. 17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장명호 사우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 류근종 사무처장이 상반기 운영경과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발전기금은 45명의 회원들이 14,700,000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신입 회원은 13명, 별세 회원은 12명으로 5월 31일 현재 총 회원은 1,265명이다. 이어 장회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처의 업무 변동상황도 설명했는데, 먼

저 노영혜 부장이 퇴직하게 된 전후 사정, 상임부회장의 근무 시간과 예우 조정 등을 설명하고 그 결과 상당한 액수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경조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상암동에 전대 중인 꽃집과의 계약 만료에 따른 제반 문제를 소개하며 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임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5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 이동한(관리) | 30만원 | • 박석태(보도) | 10만원 |
| • 임태성(보도) | 30만원 | • 조영배(편제) | 10만원 |
| • 이종태(관리) | 10만원 | • 이기한(기술) | 10만원 |
| • 이대우(보도) | 10만원 | • 이완수(대구) | 10만원 |
| • 황진욱(편제) | 10만원 |           |      |



이동한



임태성



이종태



이대우



황진욱



박석태



조영배



이기한



이완수



**KidZania Hanoi**

**MBC PLAYBE 가 꿈꾸는 멋진 세상**

**키자니아 하노이 오픈**

※ 2023 10월 오픈 예정

**키자니아 서울,부산 MBC 임직원 및 사우회 30% 할인**

문의 ☎ 1544-5110 🌐 [www.kidzania.co.kr](http://www.kidzania.co.kr)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회장 이건설)

6월 5일 신문로 『안성포순이』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다. 11명의 회원이 참석해 박찬순 회원의 신작소

설 '검은 모나리자'의 출간을 축하했으며 회원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송년회를 겸해 11월 6일에 갖기로 했다.



## ▶한문공부동호회(회장 양진수)

6월 8일 그동안 이건설 훈장의 지도로 공부해왔던 老子의 道德經 강의를 끝마치는 '책거리' 행사를 가

졌다. 다음 강의는 莊子 편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사우회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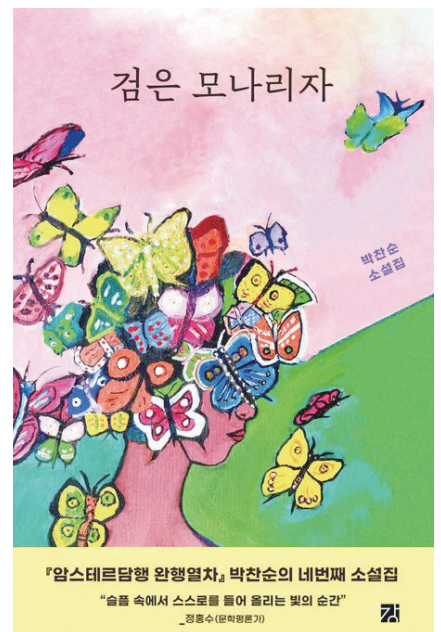
## 회/원/동/정



## ▶박찬순(편제)

네 번째 소설집 『검은 모나리자』를 출간했다.

작가의 취재와 체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콩고 출신 소년 배달부의 이야기를 담은 『검은 모나리자』와 함께 수록한 10편의 단편 소설은 한편 한편이 요즘 세상의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따뜻하게 보여준다. 2006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박 회원은 한국소설가협회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동인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 원고를 기다립니다

회보를 만들면서 원고를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쓰실만한 분이 냉정하게 사양할 때는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무엇이든 신고자 합니다.

사진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올림.

## MBC소식

## ▶MBC, 국내 언론사 신뢰도 1위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MBC는 조사 대상 15개 매체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58%는 MBC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MBC는 이전 조사에서 47%를 기록했다. 매체별 신뢰도는 MBC 58%, KBS·YTN 55%, SBS 53%, JTBC 52%, 한겨레 40%, 채널A·MBN 39%, 경향신문 37%, TV조선·중앙일보 36%, 동아일보 35%, 조선일보 33% 순이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국내 언론 신뢰도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언론자유 지수는 70.83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 ▶MBC, 세계 최초 AI PD 연출 프로그램 'PD가 사라졌다!' 제작

MBC는 "세계 최초"로 AI PD가 연출하는 프로그램 'PD가 사라졌다!'를 제작한다

'PD가 사라졌다!'는 MBC에 입사한 AI PD '엠파고'가 첫 연출작으로 입봉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엠파고'는 캐스팅부터 연출, 진행, 영상 편집까지 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2023년 차세대방송성장기반 조성 사업 지원 작품'으로 선정됐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인



간 PD들이 참여한다. '피지컬100', '먹보와 털보' 등을 연출한 윤권수 PD, '진짜 사나이', '백파더' 등을 연출한 최민근PD, '러브 마피아', '만찐남'을 연출한 조흥준 PD, 그리고 '피의 게임'에 참여한 PD들이 공동 기획에 나선다. 이들은 기획은 하지만 연출은 모두 AI PD에게 맡길 예정이다.

MBC는 AI PD '엠파고'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I PD는 '힘과 체력의 대표자', '서바이벌 전문가' 등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PD가 사라졌다!'는 올해 하반기 촬영에 들어 내년 상반기 방송될 예정이다.

## ▶이동 치과치료 봉사

"지금은 라디오시대"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하는 '푸르메 이동치과진료봉사대'가 경기도 김포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해맑은마음터>에서 치과 진료 봉사를 했다.

MBC ESG시청자팀 최윤희 국장과 자원봉사 치위생사 등 25명이 초여름 이른 더위 속에 38명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소중한 땀방울을 흘렸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토스(Toss)"의 설립자 이승건 대표도 함께 했다.





경조사항

구순: 윤여복(보도) 34.8.9 장두원(편제) 34.9.9

팔순: 이기주(광주) 44.7.18 金鍾賢(기술) 44.7.23 정영웅(대전) 44.7.24  
 연규철(관리) 44.7.28 손도정(관리) 44.8.4 박문식(대구) 44.8.9  
 차인태(ANN) 44.8.11 이영철(기술) 44.8.16 이창호(기술) 44.8.23  
 고진(보도) 44.9.1 최창업(업무) 44.9.1 한영희(업무) 44.9.15  
 김휴선(보도) 44.9.17

고희: 이상범(관리) 54.7.19 김명철(기술) 54.7.28 정환웅(편제) 54.7.29  
 정갑표(기술) 54.8.2 김세영(편제) 54.8.3 류원종(관리) 54.8.6  
 최조남(관리) 54.8.15 김승월(편제) 54.8.23 박진석(기술) 54.8.28  
 손원록(관리) 54.8.30 김종국(관리) 54.9.3 강성호(편제) 54.9.9  
 이문노(보도) 54.9.19

회갑: 송기웅(관리) 63.7.25 원신애(관리) 63.9.5 임인숙(관리) 63.9.14

결혼: 오광택(보도) 아들 7/1

부음: 민현기(편제) 장인상 6/1 이병로(관리) 모친상 6/15  
 김철진(편제) 장모상 6/18 김만기(편제) 모친상 6/29  
 김영만(관리) 장모상 6/29 나일수(관리) 부친상 7/3

연회비

2023년 : 송기남 신해명 원신애 정길용 정상자 황귀철  
 2026년 : 송인의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선천 경기 평택시 비전8길 59-1 (한올타리)  
 기술: 장정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78 (안양씨엘포레자이)  
 관리: 오영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종로 10 (탄현마을16단지아파트)  
 최동운 서울 은평구 연서로44길 7 (은평뉴타운 폭포동)  
 대구: 이종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14길 84 심플하이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尹權重(기술)**  
 6월 5일 별세. 향년 67세.  
 1981년 기술국 입사. 보도기  
 술부 등 근무. 1991년 퇴사.



**崔善圭(편제)**  
 6월 26일 별세. 향년 80세.  
 1970년 TV제작국 입사.  
 MBC예술단 총국장 등 역임.  
 1993년 퇴사.

##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원당텃밭에서 보낸 행복한 하루



김진홍(관리)

6월 19일 월요일, 당초 계획은 오전 10시 30분에 원당역에서 만나 고양누리길을 조금 걸은 후 원당텃밭으로 이동해서 박종규

원당텃밭 주인장이 제공한 감자를 캐기로 하였는데 오늘따라 낮 최고 34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몰려와 하는 수 없이 산행은 취소하고 원당텃밭으로 직행했다.  
 92세의 김세중 회원을 비롯한 사우회 산악회 회원들과 월산월회 회원 등 12명의 노장들은 두 시간

에 걸쳐 땀을 뻘뻘 흘리며 탐스러운 감자를 캐다. 이어서 박종규 회원이 준비한 오리백숙에 배다리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 식사. 김진호 회원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보람있는 농부의 식사'를 즐기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대접 받았다. 해질 무렵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감자와

함께 덩으로 상추까지 얻어가지고 원당역에서 지하철을 탄 일행은 무거운 배낭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하루를 보냈다. 귀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까지 챙겨주신 박종규 주인공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불러주세요.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 정계 거물과 재벌들이 만들어 준 코미디 후원회



故김경태

## ▶MBC 코미디의 태동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내 고향은 「웃으면 복이 와요」다. ‘이 땅에 코미디를 심고 말겠다’는 포부와 정열이 여기서 비로소 태어났으며 코미디에 관해 걸음마도 배웠고 재롱도 부리고 야단도 맞으며 자랐으니 말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늘 향수에 젖듯이 나는 「웃으면 복이 와요」의 연출을 놓으면서부터 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때 일을 회상하려고 하니 “...고향 떠나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라는 대중가요의 한 대목이 입안에서 맴돈다.

TV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이 땅에 코미디를 심어 놓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외국에서 코미디에 대한 책을 들여와 웃음에 대한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72가지 학설을 탐독했다. 만화, 드라마, 만담에 이르기까지 ‘웃음거리’라고 생각되면 정신 없이 수집하여 스크랩을 하고 카드정리를 해나갔다. 긴 세월을 매일 서너 시간씩 계속했더니 웃음에 관한 눈이 차츰 떠지는 것을 느꼈다. 이 무렵 MBC TV가 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론으로만 터득했던 것을 실제로 화면에 옮길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포맷을 생각했다.

1969년 7월 초 개국을 앞두고 PD들의 프로그램 기획안 브리핑이 있었다. 온갖 말재간을 부려 한바

탕 설명을 하고 나더니 국장급 위원 한 분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니, 방송국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저런 저질 프로가 몇 주나 갈 것 같애?”라며 펄쩍 뛰었다. 세상에..., 나름대로 수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기획한 작품을 선입견만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묵사발을 만들다니. 인격 모독까지 느꼈다. 저질이 라니, 이를 악물었다. ‘어디 두고 보시오, 몇 주 안에 없어지는지’.. 팽이는 채찍을 맞을수록 잘 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매를 맞으니 오기가 나서도 분발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두고 보강 정리를 했다. 내 평소 소신은 이렇다. “프로그램의 성패는 3의 수학에 달려 있다. 3주만 계속 히트하면 프로는 안정되고, 석달만 화제를 모으면 통련할 수 있다.”

장애물은 도처에 있었다. 우선 작가가 없었다. 유머 드라마 작가는 두어 사람 있었지만 드라마 속에서 얹게 웃기는 능력은 있어도 폭소를 일으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물색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콩트를 쓰던 백승찬 씨를 만났다. 여관방을 전전하며 머리를 맞대고 작품을 구상하는데, 나는 작품 이전에 그의 인품에 매료됐다. 글은 필자의 인격을 반영한다. 그래서 작가의 인품이 중요하다. 이것은 코미디의 품격을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건이다. 연기자로는 구봉서, 송해, 박시명, 이순주를 선두로 하고 차츰 보강하기로 했다. 제작에는 유수열 PD와 배상석 AD가 힘을 보탰다.

“이제까지 없던 포맷으로 하자. 남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전혀 새

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채널을 잡아 났으면 시청자가 돌릴 수 없도록 설새 없이 웃겨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귀퉁이도 느슨한 곳이 없어야 된다. 한참 웃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흐뭇한 정감을 주어야 하고 마지막 토막은 씨리스로 끌어 나감으로써 「웃으면 복이와요」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맷을 짰다.

각양각색의 코미디 토막 사이에 코믹 무용과 코믹 송(song)을 넣고 마지막에는 소박한 시골 노인의 눈에 비친 도시 생활의 비리와 모순 따위를 꼬집는 「구침지 상경기」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다. 이른바 ‘버라이어티 코미디쇼’였다.

## ▶웃으면 복이 와요

공개홀에서 첫 녹화를 하던 날. 냉방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스튜디오가 찜통 같았지만 방청석은 초만원이었다. 굳이 공개홀을 택한 이유는 화면 속에서 웃음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시청자가 빨리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운관이 워낙 찬(Cool) 것이어서 웃음의 촉매제가 없으면 화면 속에 아무리 우스운 장면이 벌어져도 현장감을 느끼지 못해 따라서 웃는 경우가 반감이 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함께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웃음이 증폭된다’는 웃음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조정실에 아직 기계가 설치되지 않아 중계차 안에서 연출을 했다. 코너가 진행될 때마다 크게 웃어주는 방청객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이 웃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NG를 부르지 않았다. NG 내고 다시 하면 쉽사리 다시 웃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가 갑자기 어긋났을 때 웃음이 발생한”이 이론이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 시간은 40분이었지만 한 시간 이상의 방송량을 만들었다.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연기자의 작은 실수, 소품, 세트의 부실로 웃음을 일으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을 통해서 우습지 않거나 저질스러운 토막들은 모조리 잘라내고 잘된 것들만 엄선해서 편집해 방송했다. 1969년 8월 13일에 방송된 첫 방송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나는 언제나 이런 신념을 갖고 제작에 임해 왔다. “프로그램은 프로듀서의 얼굴이고 전 인격이며 교양의 소산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첫 프로를 만들 때와 같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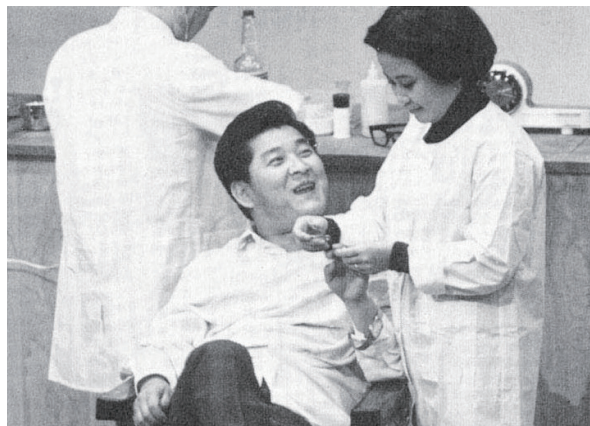
첫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나니 더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백 선생과 함께 또 여관에 들어가 벽에다 이마를 짚이기에 다음 회분을 꾸려나갔다. 이러기를 몇 주 계속하니 회사 안에서는 물론 시청자들에게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반응을 보기 위해 방송 시간이면 아파트 복도를 서성거리며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들었다. 다른 날에는 전파상이 몰려 있는 곳과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을 돌아 다니며 귀를 세웠다.

급기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40분 동안은 경쟁 방송국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드라마, 외화 나중에는 유사 프로를 만들어 대항을 해왔지만 결과는 늘 우리의 승리였다. 마침내 「웃으면 복이 와요」는 MBC의 간판 프로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나는 식구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반찬을 요것조것 바꾸어 만들어 차려놓고 별식을 곁들여 상을 들고 들어가는 알뜰 주부의 겸허한 정신과 식구들을 아끼는 마음을 늘 지니기로 다짐했다. 남들이 칭찬을 할 때 더욱 오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타일렀다.

「구침지 상경기」를 녹화할 때마다 구봉서 씨의 노역에 매혹될 때가 많았다. 그의 노역은 일품이었고 구수한 연기는 마치 그가 지금 65세 정도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더 인상적인 것은



유쾌한 청백전



웃으면 복이 와요



그의 시간관념이었다. 4년 반을 함께 하면서 한 번도 녹화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핑크넨 일은 더욱 없었다. 부친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이 맡은 토막을 다 마치고 스튜디오를 떠나 그의 성실성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배삼룡 씨는 「웃으면 복이 와요」가 3회 정도 나가는 것을 보고 숨어살던 부산에서 자기 발로 찾아왔다. “빛에 쫓기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했다.

그를 프로에 합류시켰더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연기에 몰두했다. 사장 역할도 시켜 보고, 사기꾼 역할도 시켜 보고, 점잖은 신사 역할도 시켜 봤지만 바보 역할을 할 때만큼 웃음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바보 역할 전문가 됐다. 연출자는 산파역이다. 연기자의 특성을 발견해서 그 점을 키워주는 것은 연출자의 의무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신들린 사람처럼 뛰는 그가 스튜디오에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 덩어리였다. 녹화 전날 밤은 으레 코미디에 쫓기는 꿈을 꾸느라 깊은 잠을 자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나는 녹화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제발 이 말썽쟁이가 오늘 또 핑크넨 내게 해 달라’고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핑크넨은 것은 너무나 다반사요.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느라 춘천에 계신 큰아버님이 서너 번이나 돌아가셨다. 아무튼 구봉서와 배삼룡은 명콤비였다. 카메라 앞에서 마주 보고 연기하다가 서로 웃음이 터져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려 일곱 번을 같은 장면에서 NG를 낸 적도 있었다. 서수남, 하청일을 짝지어 이 프로에서 ‘코믹 싱어커플’로서 터를 굳히게 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 ▶유쾌한 청백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생긴 지 석 달이 지나 가을 개편에 접어들었는데 공개홀에서 만들 수 있는 프로를 하나 더 만들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웃으면 복이 와요」만으로는 소장 또는 신인 코미디언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던 터였다. 게임을 통한 웃음을 만들기 위해 한쪽에는 언제나 코미디언, 다른 쪽은 가수, 탤런트, 성우 등을 돌아가며 대결시키는 프로그램 「유쾌한 청백전」을 만들었다. 웃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인간의 실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게임에서 그 실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자연스런 가능성에서 폭소를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 내 계산은 이번에도 적중해서 「유쾌한 청백전」도 공전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세 TV 방송의 시청률 조사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와 「유쾌한 청백전」은 매번 5위 안에 들었다.

#### ▶부부 만세

어느 날인가 임원실에서 부르더니 「유쾌한 청백전」은 후배에게 넘기고 ‘매일 같은 띠에 코미디를 10분 내지 20분에 걸쳐 할 수 있겠느냐’고 주문했다. ‘스폰서만 붙이면 회사에서 두둑한 보너스도 주겠다’고도 했다.(그러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웃음거리를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다.

부부라는 것이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또 서로 숨길 수밖에 없는 일면도 있다. 신문 만화 「블론디」라든가 「매기와 지그스」가 부부 이야기만으로 통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재의 다양성’에 있다. 과거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부부를 주제로 한 코미디로 웃긴 경험을 되살려 “부부물 일일 홈 코미디”를 기획, 제작했다.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사는 두 친구의 부부 생활. 한쪽은 구봉서와 유하나 부부, 다른 한쪽은 배삼룡과 최경자 부부다. 이 두 대조적인 부부를 통해 당시 막고개를 들기 시작한 아파트 생활에 얽힌 에피소드들로 하루 하루를 이끌어가는 「부부 만세」가 그렇게 탄생했다.

#### ▶부부 만세 후원회

「부부 만세」가 나간 지 2년쯤 되는 어느 날. 당시 정계를 주름잡던某씨가 재벌 몇 사람과 함께 「부부 만세」후원회를 만들어 주고 기금까지 마련해줬다. 코미디를 위해 누군가가 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이 기금 덕분에 연기자 몇 사람과 함께 귀빈 대우를 받으며 일본을 여행하고 온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다. 무려 4년 반 동안 나는 두 프로의 기획, 연출을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 만세」로 웃기고, 일요일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로 폭소를 일으켜야 했다. 그러자니 아이디어에 쫓기고 연출에

지쳤다. 녹화가 끝나고 나면 두 손이 마치 중풍 걸린 사람처럼 떨렸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착잡했다.

#### ▶MBC를 떠나다

「웃으면 복이 와요」를 220회쯤 했을 때, TBC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당시 ‘TBC에서는 코미디가 안된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작가도 모셔가 보고 연기자도 꼬셔갔지만 번번히 실패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기획, 연출자를 데려가려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내 나름대로는 “불모의 땅에 코미디를 심겠다”는 일념으로 4년 반 만에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손을 떼고 1973년 10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팔자 사나운 여자가 시집을 여러 번 가서 가는 곳마다 자식들을 낳아놓듯이’ 여러 채널에 코미디를 심어 놓고 마침내 KBS를 끝으로 방송 생활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칭찬보다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 땅에 코미디를 심어 웃음꽃을 피우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당초의 뜻은 이루어 놓은 것 같다.

#### ▶제언

코미디를 스스로 자찬하고 만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무엇보다 제작에 임하는 연출자, 작가, 연기자들 모두가 ‘코미디를 더 공부하려는 열성과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에서는 결코 웃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습관적이 아닌 것, 정상적이 아닌 상황들이야 웃음을 일으킨다. 그러기 때문에 코미디가 저질로 타락할 위험 또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단순히 ‘말도 안되는 상황, 억지 행동’이 사람을 웃겨 주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이 아닌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리얼리티는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한 계를 지키지 않는 데서 우습기보다는 코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론에 대한 공부와 연

구 없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문제는 있다. 너무나 제약이 많은 게 그것이다. 종류수 같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풀잎도 있고, 장구벌레도 기어 다니고, 흙탕도 일고, 자갈도 깔려 있어야 큰 고기가 살 수 있다. 너무나 깨끗하고 품위만을 요구하면 ‘웃음이라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다. 우습지 않으면 코미디가 아니다. 웃음 그 자체가 코미디의 목적이다. 덧붙여 억지 교훈을 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것에게 뛰라고 성화를 하는 꼴이다. 코미디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대중문화의 작은 한 분야지만 우리 사회에서 코미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사 뿐 아니라 정부 관계 부처에서 차원 높은 배려와 육성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두려워 서둘러 웃어야겠다”고 ‘버나드 쇼’는 익살을 부렸다. 웃음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웃음이 지겨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유일하게 웃는 동물이고 또한 인간만이 남을 웃길 수 있는 동물이다. 우리 사회가 건실하게 코미디를 키워서 웃음으로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향 떠난 사람이 늘 고향을 그리듯이 「웃으면 복이 와요」를 떠나 있는 동안 늘 ‘그 시절이 좋았구나’ 하는 향수에 젖어 있다.

누가 내게 “만일 당신이 젊어져 방송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웃으면 복이 와요」 AD를 거쳐 연출을 하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다.

(1983년 MBC가이드에서 옮겨옴)



부부만세



## 순수에 대한 최초의 배신



조 성 식  
(업무.이사)

동해의 외로운 섬 울릉도. 1971년 여름, 방언 조사를 하기 위해 K대학 국문과 학생들이 방문했던 울릉도는 분명 외로운 섬이었다. 멀리서 본 울릉도는 다른 섬과 달라 보였다. 대부분의 섬이 완만한 삼각형 모양인데 비해 울릉도는 사각형이었다. 11시간 만에 도착한 도동항은 항구라기보다는 조그만 부두 같았다.

그런데 동해의 절해고도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풍성한 느낌도 들었다. 곳곳에 보이는 오징어 덕장이 그랬고, 다른 섬에는 부족한 물이 이곳에서는 풍부한 듯했다. 오랜 항해 뒤끝이라 그런가? 여인들의 모습도 희고 예쁘게 보였다.

이 마을에서 오징어를 공짜로 얻어먹고, 다음 마을에 가서 또 얻어먹고…… 싸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오징어 인심은 아주 좋았다. 더구나 마을에서 주는 오징어는 완전히 마르기 전의 싱싱한 것이라 구워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혔다.

매일 매일의 방언 수집이 끝나면 숙소로 얻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방언 수집 결과보고와 함께 장기자랑 등 여흥시간도 가졌다.

학교 강단에서는 점잖게 학문적인 내용만 강의하던 교수님들의 고답존론(이라 쓰고 음답패설이라 읽는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적어도 K대 교수님을 하려면 저런 정도의 입담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하는 부러움과 함께.

조사도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우리 그룹은 울릉도에서도 외진 산간마을의 방언 수집을 끝내고 하산을 시작했다.

주위에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검푸른 산그늘과 함께 검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룹에서 좀 떨어져 걷고 있던 나는 냇을 잃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말랐다. 주위에 인가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둘러보니 오른쪽 언덕 저편에

짙단처럼 생긴 풀무더기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집 아닌 집’, 문자 그대로 초옥草屋이었다. 뭔지 모르게 은근히 겁이 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헛기침을 하고는 “계세요?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썩쇼, 가지런히 머리를 땀은 정말 깨끗하게 생긴 처녀였다. 21년 밖에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는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처녀는 깨끗한 사발에 물을 담아와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미는 것이 아닌가?

날은 어두워지고 일행이 금세 나를 찾을 것 같아 조급한 마음이었지만 떠오르는 궁금증을 참을 길 없어 ‘심문(?)같은 수작’을 걸었다.

“나는 방언 수집 차 서울에서 온 대학생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한 뒤 처녀의 이름을 물으니 작은 목소리로 ‘O화’라고 대답한다.

너무 신기해서 “그것은 O꽃이란 뜻이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나” 물으니 “할아버지…….” 그때 집안에서 ‘어흠’하는 노인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앗 뜨거라’ 싶었지만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볼펜과 종이쪽지를 건네니 역시 두 손으로 받는다. “울릉도 북면 천부동……주소는 없어예…….”하고 머뭇거린다.

그때 저만큼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웃도 하얗다. 가까이 보니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였다. 처녀와 수작을 한다고 해서 야단을 칠 표정은 아닌 듯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네 할아버지 시죠?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나요?”

나의 물음에 노인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때 산 아래서 “빨리 내려와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학교 주소와 내 이름을 적은 쪽지를 건네니 또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다. 만약 서울의 어느 여자들이었으면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

요?’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밤 울릉도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기가 나빠지자 인솔 교수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은근히 기뻐다.

“폭풍우야, 몰아쳐라! 산골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날이 밝았다. 아쉽게도 햇빛이 짙게 비쳤다. 우리 일행은 급히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후의 생활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와병 중이신 어머니, 실연이 가져다 준 쓰라린 공허함, 하루도 쉴 수 없는 과외공부 아르바이트로 힘겹기만 한 학교생활. ‘다중고多重苦’란 말이 꼭 어울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캠퍼스의 낭만’ 어찌구는 아예 판 나라 얘기였다. 며칠 후 나의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주소 없는 울릉도로 부쳤다.

한참 만에 온 답장을 보니 그녀는 한글을 잘 모르는 듯했다. 게다가 군데군데 잘 나오지 않는 볼펜 글씨를 침으로 지운 흔적도 보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버지는 오래 전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는 개가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동봉했다.

나는 이 편지를 여러 번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들 ‘울릉도 처녀 같지 않다’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편지가 여러 번 오가는 사이에 그녀의 한글 맞춤법 실력과 내용도 좋아졌고 필기구도 새로 장만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얼마 후 그녀는 울릉도에는 성당이 없어 교회를 다닌다고 적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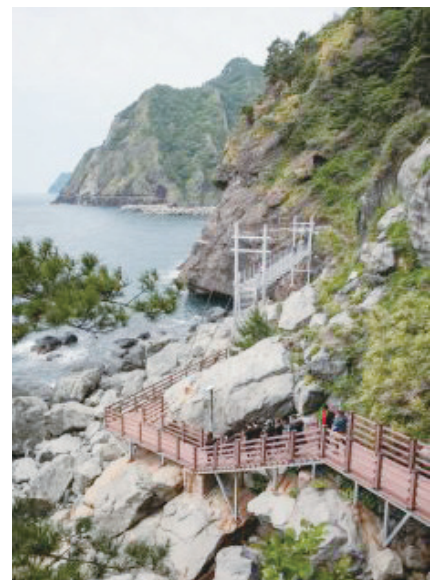
그 해도 끝나는 11월 어느 날, 그녀는 “서울 마포의 SK교회의 초청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 편지를 받아 본 나는 잠깐 생각한 후 그동안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들과 유일한 사진을 동봉

하여 울릉도로 부쳤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 엄밀하게 내 성격(천성)을 분석해 보면, 평소에는 ‘과단성과 결단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중단함에 있어서만큼은 순식간에 과단성과 결단력을 발휘하는 매우 ‘유별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당시의 내 행위가 조금은 이해가 될는지.

위에 썼듯이 당시 나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혈기왕성한 21세의 청년이었다. 그런 내가 오랜만에 서울에 온 ‘O화’를 데리고 온종일 창경원이나 남산 등을 구경시켜 주고 나면 어느새 날은 어둑해질 것이고…… 남산 입구의 ‘장미(?)여관’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녀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분명 부질없는 고민과 오버센스였으리라. 그러나 당시 내 결단은 ‘정신적인 피해는 육체적인 피해보다 클 수 있다’는 심리학적인 경고를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아니 그런 지혜와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가끔 떠오르는 ‘O화’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당시의 ‘속좁은 결단력’은 나를 한없이 왜소하게 한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순수에 대한 최초의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O화’의 행복을 빌 뿐.



울릉도



## 원자原子와 인간 의식意識 -손녀와의 대화



강 홍 신(기술)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 어느 날, 고등학생인 손녀와 둘이서 산림이 우거진 양평 청계산 깊은 산길을 걸었다. 평소 책을 좋아하고 사색에 잠겨있기를 좋아하는 손녀가 대견하고 귀여워서 나는 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다행히 그 아이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싫지 않은 듯했다. 다소 가파른 산길을 한참 걷다가 우리는 길옆 넓적한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땀을 닦으며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시는 손녀의 건강한 옆 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젊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야’ 생각했다.

“너 이공계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 불쑥 던지는 질문에 잠시 눈을 깜박이더니

“네, 장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전공은?”하고 다시 묻자

“물리학과요”라고 주저 없이 대답한다.

나는 내심 반가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나와 같은 이공학도가 되겠다고 하니 더더욱 대견하고 흐뭇했다.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 과학자가 되고 싶다니 참 잘 선택했다고 본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모두 과학자의 덕분이거든. 나도 이공계를 전공했는데 나한테 뭐 물어볼 것 없니?”

“할아버지,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양자역학 있잖아요, 그거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오, 이런. 최첨단 물리학 문제를 묻는구나. 근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를 알아야 할거야. 이 세상, 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물질(Matter)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질은 원자(Atom)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너도 잘 알겠지. 그럼 원자는 처음에 어떻게 태

어났을까?”

아이의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내 얘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중요한 시간이 될 듯한 예감이 들어 나도 진지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보니 우주의 탄생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구나.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급적 쉽게 설명해볼 테니 잘 들어 보라”

“네, 할아버지”

“우주는 무(無) 즉 ‘허허공공(虛虛空空)’ ‘무한공간(無限空間)’인 진공에서 태어났단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힉스장(Higgs場)으로 꽉 차 있다고 하지. 또 진공에도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진공에너지’ 또는 ‘암흑에너지’라고 해요. 힉스장의 에너지는 불확정적이고 요동하고 있지. 이 힉스장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빅뱅(Big Bang) 즉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때 물질의 기본입자인 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네, 빅뱅은 저도 알아요”

“그래, 너도 조금은 아는 얘기일 거다. 자 이제 원자가 태어났으니 원자의 구조를 살펴볼까? 원자는 쿼크 입자 6개, 렙톤이라는 가벼운 입자 6개, 힘을 전달하는 입자 4개, 그리고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 한 개 등 총 17개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물질은 총 17개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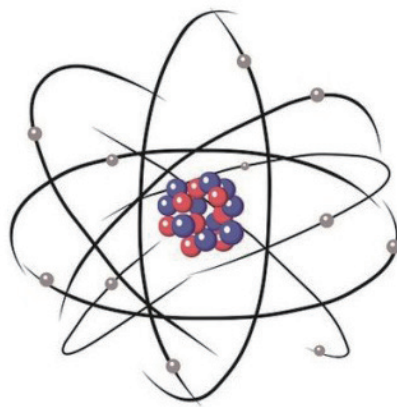
“그렇군요. 저는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만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힉스입자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어쩌면 너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게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쪼개보면 모두 쿼크로 되어있는데, 이 쿼크 입자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이휘소 박사라는 분이셨지. 오래 전에 미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말야”

“오, 그런 분이 계셨었나요? 너무 아깝네요”

“그렇게 말이다. 세계적인 손실이라고 봐야지. 하야간 전자는 랩톤 입자 중 하나란다. 그리고 힉스 입자는 2012년에 발견됐는데 17개 소립자 중 중력을 전달하는 중력자(重力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단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해 하는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이론’으로 미시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이라한다.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물리학’ 또는 ‘뉴턴역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시세계를 다뤘단다. 양자역학이란 찌엄찌엄 떨어진 양량으로 되어있는 것, 전문용어로는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이론이라한다. 고전물리학과 다른 점은 첫째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고, 둘째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셋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때, 이해할 수 있겠니?”



“글쎄요. 좀...어려운데요?”

“그렇게다. 아무튼 빛의 입자인 광양자(Photon)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양자역학을 ‘광양자, 전자의 역학’이라고도 말하지. 소립자의 양자적 실체는 ‘양자얽힘’에 의해서 한쪽에서의 현상이 마치 귀신이 나타나듯이 다른 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다 빛(광양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질은 입자지만 물질파(파동)를 발생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 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쯤에서 양자역학 이야기를 끝내자. 나중에 네가 과학자가 되면 더 깊이 알아보려무나.”

“네, 할아버지 설명을 들으니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좀 다른 얘긴데요, 왜 현대인들은 오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세상에 아직도 점占이라는 것을 칠까요?” 아이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툭 던진다.

“글쎄, 그거야 현대과학에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 너도 알다시피 동양철학은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특히 중국 5대 경전 중의 하나인 주역(周易)은 ‘점서’라고도 하는데, 주역의 기본이론도 역시 음양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음양이론은 현대과학에서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음양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 동양사상과 일맥상통하는거지. 공자가 주역을 해설한 ‘계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단다.

一陰一陽之謂道(일음일양지위도)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고,

陰陽不測之謂神(음양불측지위신) 음과 양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참으로 신묘하도다.

자,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과학은 끊임없는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일뿐 완전히 안다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어때, 내 말 이해하겠니?”

“네 할아버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손녀와의 대화는 이후 집에 올 때까지 다양한 분야로 발전했지만 그날 내가 들려준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 아이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날 이후 아이의 과학 공부는 더욱 깊이를 더해 갔으니 말이다.



## ‘인생 3막’ ‘미디어 해설사’



### ▶인생 1막: 조명감독과 유튜버

컬러방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음 해인 1982년 MBC에 입사했다. 입사는 정동사옥에서 했지만 당시 마무리 공사 중이었던 여의도 사옥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수습기간 중 텔레시네(필름으로 촬영한 영상을 녹화 테이프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6개월 수습을 마치고 마침내 조명신입(LO:lighting operator)으로서 조명감독의 지시를 받아 각종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될 조명 작업을 담당하게 됐다.

1989년 조명감독(LD:lighting director)으로 입문해서 여의도와 일산의 스튜디오를 오가며 후배, 동료와 함께 낮과 밤이 뒤바뀌는 생활을 하며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다. 기억나는 프로그램은 ‘상도’, ‘이산’, ‘동이’, ‘짝패’, ‘마의’, ‘화정’이라는 사극과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등의 시트콤이다.

주어진 일에 정신없이 매달려 끌려가던 어느 날 문득 의문이 생겼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영상은 테이프와 시청자의 마음에 남아있지만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 않는가’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과 사진을 바탕으로 2010년 <빛장 김감독의 방송조명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이후 방송제작과 드라마, 쇼 제작에 관한 책을 후배와 함께 5권 더 출간했다.

이후 메모와 영상 및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8월부터 빛장

TV라는 유튜브를 개국해 유튜버가 되어 방송제작, 조명, 무대, 공연, 방송사 취업등의 내용을 매주 2개씩 제작해 현재 390개의 강의형 영상을 올리고 있다. 편집은 C급이지만 내용은 A급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 영광스럽게 48명의 정년 퇴직자를 대표해서 상암 공개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MBC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년퇴직은 졸업이고 사회의 입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나의 회사 MBC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 ▶인생 2막: 백석예술대 교수

2015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화랑에서 만난 A라는 분과 인연을 이어가던 중 백석예술대 교수로 임용된 그가 자기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암MBC 견학을 요청해 견학을 시켜줬다. 대학로 뮤지컬과 MBC 사내 견학으로 인연이 된 A교수님의 부탁으로 2019년 안식년 기간에 백석예술대 출강 부탁을 받아 강의를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 백석예술대에서 방송제작에 대한 초빙교수 공고가 있어 지원을 해 운 좋게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교수 인생이 시작됐다.

### ▶인생 3막: MBC ‘미디어 해설사’

2024년 대학교수 정년을 앞두고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남은 시간과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사우회 사무처장

의 전화를 받았다. MBC ESG시청자탐에서 코로나가 종식된 금년 5월부터 사내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거기에 알맞은 해설사를 찾기 위해 MBC사우회에서 퇴직한 선배 중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떨지를 묻더니 ‘도슨트 개념의 방송사 안내자’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MBC담당자와 미팅을 했고, 내가 현직에 있다 보니 겸직 허가가 필요해 MBC사장님이 학교 총장님께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미디어해설사라는 이름으로 MBC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후에 해설을 진행하게 됐다. MBC 출입증을 목에 걸고 현직에서도 입지 않았던 MBC로가 새겨진 재킷을 입고 MBC 게이트를 당당하게 통과하던 날 감회가 남달랐고 다시 신입으로 입사하는 기분이 들었다.

2023년 6월 8일, 국내 최초인 ‘MBC 미디어해설사 1호’로 정식 데뷔를 했다. 2015년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2,500명 이상의 사내 견학을 안내한 경험이 있지만 제복을 입고 MBC를 대표하는 견학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도 했다. 다행히 첫 견학팀이 성신여대 미디어콘텐츠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견학을 마쳤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MBC였지만 방송사에 처음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그리고 품위있게 방송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다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만은 아니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멋진 미디어 해설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견학에



MBC사원 가족 초청 견학

참여했던 학생대표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MBC견학에 참여한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상학회 대표 이○○입니다. 오늘 견학이 저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게 인솔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맺음말

요즘은 현직에 있을 때 정리한 사내견학 안내파일을 찾아 복습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MBC 관련 자료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견학 안내는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했지만 MBC 로고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하는 해설은 MBC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방송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 해설사의 기본 자세는 MBC를 사랑하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자부심이 내가 전하는 해설 속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얘기를 보고 미디어 해설에 관심 있는 사우회원이 계시면 언제든지 사우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나보다 더 유능한 2, 3호 미디어 해설사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한국 연수 기념



뉴스센터 스튜디오 설명



상암 사옥 6층 폴리 스튜디오 설명



제작 스튜디오 부조정실 설명